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13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1)

시작하는 말: 지금까지 성소의 구조와 기구들이 구속 사업의 어떤 면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이제는 성소를 맡아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물들이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지 연구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관련되어 주어진 것들은 그 모두가 주님의 구속 사업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상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다.

1.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인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이다.**

   [레 6:25]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레 7:1]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구약의 제사를 5대 제사라고 말한다. 그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이다. 그러나 속죄와 관련된 제사로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대표적인 제사인 것 같아 보인다. 번제, 소제 등은 다음 과에서 살필 것이다.

2. **속죄제는 죄제라고도 하는데,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이다.**

   [레 4:3,13,14,22,23,27,28]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 속죄제는 원문으로 하타아트(taF;j'), 또는 하타아(ha:F;j')인데, 이것은 "죄"라는 말과 꼭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죄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말로 쓰인 것이다.

3. 그러므로 속죄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사죄함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제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시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 10:6-10]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 16:7-10]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눅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행 11:1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4. 속건제(贖愆祭)는 건제라고도 하는데 계명을 범하거나, 성물을 손해 내었거나, 이웃의 물건을 손해 보게 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다.

[레 5:1-6]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

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 5:14-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 5:17,18]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 6: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5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속건제는 아샴(!v;a:)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물, 과실, 실수 등의 뜻이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이미 속죄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성립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거나 하나님의 물건과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제사이다.

속건제 중에 금령을 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보였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모든 죄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썩어짐의 종이 된 영향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그 근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도덕적으로나 혹은 사단의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어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속건제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 중에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못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사실을 뜻한다.

[요 13:8-10]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사 53:10]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엡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6. 화목제는 평안제(平安祭), 수은제(酬恩祭), 낙헌제(樂獻祭)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제사이다.

[레 3:1-17]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3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6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7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8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9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0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
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11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
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12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3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
릴 것이며 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
한 규례니라.

[레 7:11-34]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
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
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
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 삼 일까
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 삼 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
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20 만
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
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
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
름을 먹지 말 것이요 24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
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25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
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6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
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27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30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1) 감사제(感謝祭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2) 서원제(誓願祭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인도해주기를 원함.

3) 자원제(自願祭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 현재의 상황에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기 원함.

화목제는 셸렘(!l,v,)이라고 하는데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평안제라고 번역도 된다. 뿐만 아니라 수은제(왕상 3:15, 왕하 16:13, 암 4:5), 낙헌제(레 22:17, 민 15:3, 시 54:6, 119:108)로 나타나는데 같은 제사이다.

7.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불사르거나 혹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도 제물 드린 자는 결코 먹을 수 없다. 그러나 화목 제물은 드린 사람과 가족도 먹는다.

[레 6:30]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레 10:17]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것은 휘장과 제사장이 모두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이다. 즉 죄를 이중으로 담당하는 일이 없고 주께서 단번에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 7:26,27]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10-14]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이 각각 나누어 참여한다.

[레 3:3-5, 9-11]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0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11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레 7:30-33]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레 7:15-21]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 삼 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 삼 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21 만일 누구든지 부

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것은 한 제물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인데 화목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목제물로 비둘기는 사용할 수 없다.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한 제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둘기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참여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중보를 담당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화목 하는 기쁨의 제사이다.

8. 화목제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이 그 화평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것을 상징하는 제사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일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1:1-7]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5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후 5:18-21]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

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우리는 제사 중에 중심 되는 세 가지 제사에 대하여 구속의 복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죄를 입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생명의 활력을 누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목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